

초등학교 언어창작영재의 적성과 진로성향 및 진로성숙도 연구

김 유 선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교육청 글쓰기 대회에서 수상하여 언어영재캠프에 참여한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60명)을 대상으로 언어창작영재들의 적성과 진로성향 및 진로성숙도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지능 프로파일은 언어적성, 음악적성이 강점지능으로, 논리·수학적성이 약점지능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수적성은 음악적성과 언어적성으로 나타난 학생의 수가 많았고, 논리·수학적성이 가장 적었다. 논리·수학흥미와 논리·수학성취가 유의수준 $p<.01$.에서 상관관이 있었다. 셋째, 진로성향은 언어성향과 인간친화성향의 학생이 가장 많았고, 음악적성, 자연친화적성, 인간친화적성은 우수적성과 진로성향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넷째, 과반수 이상(41명, 68%)의 학생이 조기 진로성숙의 특성을 보였다. 언어창작영재들의 성공적인 진로선택을 위해 우수적성에 어울리는 직업의 안내와 진로성향에 맞는 적성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언어창작영재, 적성, 진로성향, 진로성숙도

I. 연구의 필요성

성공적인 직업인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재능과 적성이 무엇인지 알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신체운동적성이 뛰어난 김연아, 박태환, 논리수학적성이 뛰어난 스티브잡스, 인간친화적성이 뛰어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자연친화적성이 뛰어난 파브르, 자기성찰적성이 뛰어난 에디슨, 음악적성이 뛰어난 장한나, 언어적성이 뛰어난 고은 시인, 공간적성이 뛰어난 앙드레김은 성공적인 직업인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영재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의 방향도 다양한 영재성을 지닌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영재

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수학·과학 영재들을 위주로 실시되어왔다. 인문영재나 정보영재, 로봇영재, 예술영재 등 다양한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수학·과학 영재와 비교해 볼 때 학생 수나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언어/예술/인문 분야의 교사의 수와 교사연수 비율도 수학/과학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적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선발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영재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언어/예술/인문/정보영재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도 그 지역에 해당 영재기관이 없어 수학·과학 영재반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외국어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과도한 사교육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서혜애, 손정우(2007)는 과학고 교육과정의 운영이 잠재적인 과학영재들의 창의성과 탐구능력을 계발하기 보다는 희망하는 대학입학 준비를 위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과학고등학교의 역할이 모호해졌다는 비판이 일자 2003년에 과학영재양성을 위해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새로 설립되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국가에서 추진하는 영재교육 정책이 영재교육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서, 영재학생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적성과 진로선택의 연계성에 대해서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양태연, 한기순(2010)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성인이 된 지금이야말로 영재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시작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영재의 진로에 대한 연구물은 많지 않다. 선행 연구로는 과학 관련 진로 선택 과정의 구조방정식 모형에 관한 연구(윤진, 박승재, 2003), 과학 영재 학생들의 진로 선택 과정에 영향을 주는 과학 영재 캠프의 요인에 관한 연구(김현정, 유준희, 2006), 발명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생의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강규승, 남현욱, 2009), 과학영재의 진로선택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황희숙, 강승희, 황순영, 2010), 초등 영재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유형근, 2010) 등이 있다.

영재들은 진로선택에 있어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심재영, 박은영(2003)은 영재들이 ‘조기 진로성숙’으로 인해 일반 학생에 비해 자신의 흥미, 적성, 소질, 능력에 따른 진로탐색 및 빠른 진로결정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영재는 다재다능한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 흥미가 있기 때문에 한 두 분야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진로선택을 미루는 부정적인 면(Kerr, Sodano, 2003)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영재들은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지만, 어떤 영재들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영재의 진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과학영재들의 진로선택에 관

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고, 언어창작영재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학·과학영재들에 비해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진 언어창작영재의 적성과 진로, 진로성숙도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다중지능 적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재능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초등 영재들의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언어창작영재의 다중지능 프로파일과 우수적성, 진로성향 및 진로성숙도는 어떠한지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언어창작영재

언어영재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극작과 창작을 포함한 10개의 영역의 영재성을 주장했던 Dehann & Kough(1956)의 연구나 말하기와 듣기, 쓰기와 읽기 및 시청각 능력을 모두 고려한 언어 영재의 개념을 제시했던 Michael(1958)의 연구 등을 시초로 1950년 후반에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어영재에 대한 연구물이 많지 않으나 언어영재의 개념(이순영, 1999), 언어영재교육의 필요성(강승희, 조석희, 2004), 언어영재의 판별도구(이의란, 2004), 언어영재 교육 체계와 내용에 대한 연구(박수자, 최인자, 김정섭, 강승희, 2004), 언어영재성에 대한 연구(최지현, 이충우, 이정숙 2006) 및 언어영재 심화프로그램(이미경, 2005)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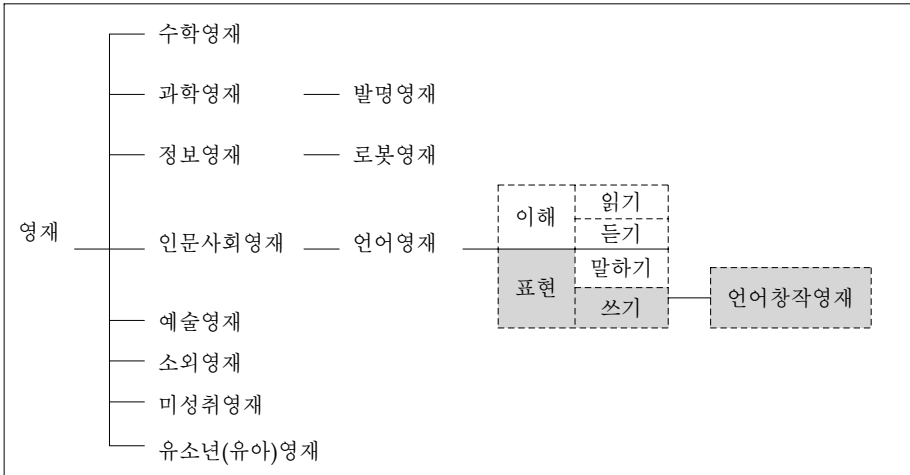
언어영재에 대한 용어는 언어영재, 언어창작영재(한석실, 윤초희, 강승희, 조석희, 2004), 문예창작영재(강승희, 2006), 문학창작영재(박소영, 2008), 언어·문학영재(박인기, 2009), 인문사회영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순영(1999)은 언어 영재의 개념 규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표 1>과 같이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표 1> 언어 영재의 개념 규정에 관한 관점들

| 언어적 지능으로 언어 영재를 규정하는 관점 | 언어능력으로 언어 영재를 규정하는 관점 |
|---|--------------------------|
| 언어 지능 검사의 언어 영역 검사 언어 이해와 언어 표현(유창성) 측면 | 말하기·읽기·쓰기·(듣기)(언어논리) 능력 |
| | 말하기와 쓰기 능력(표현 능력) |
| | 쓰기 능력(비문학적 글쓰기와 문예창작 포함) |
| | 문예 창작 능력 |

그는 말하기·읽기·쓰기·듣기 능력과 같은 ‘언어 능력’으로 언어 영재를 규정하는 흐름에 동의하여 말하기·읽기·쓰기·듣기의 각 언어 영역별로 탁월한 성취를 보이거나 그

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사람을 언어 영재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언어창작영재의 개념은 [그림 1]과 같이 언어능력으로 언어 영재를 규정하는 관점 중에서 비문학적 글쓰기와 문예창작을 포함하는 쓰기 능력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림 1] 언어창작영재의 개념 위치도

강승희 외(2004)에 의하면 언어영재성을 대표하는 언어 산출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초인지, 문식성 환경, 언어적 창의성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적 지능, 독서태도, 자기 효능감도 언어 산출물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최지현 외(2006)는 언어영재(언어영재성)에 대한 관점을 산출물에 초점을 둔 언어영재성과 심리적 성향에 초점을 둔 언어영재성으로 구분하였다. 산출물에 초점을 둔 언어영재성의 관점에서 언어영재성의 창작 능력은 ‘창의성’과 관련이 있고 창의적 산출물이 창의성의 객관적 검증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영재성의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언어창작영재’ 또는 ‘창작 영재’라는 용어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용된다고 보았다.

장창영(2009)은 언어-문학영재의 경우에 창의성과 독창성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결과가 언어라는 구체적인 산출물로 나와야만 한다는 특수성이 다른 영역의 영재들과는 다른 점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특수한 능력은 지속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물을 살펴볼 때 언어창작영재의 특성은 ‘언어’라는 구체적인 창의적 산출물을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초인지, 언어적 지능, 언어적 창의성이 높으며 가정의 문식성 환경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다중지능

Gardner(1983)는 각 지능의 주요한 특징이 관련 상징체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라 하였다. 숫자, 그림, 지도, 음성언어, 몸짓언어, 리듬 및 멜로디 등으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특정 상징체계에 민감해지고 관련된 활동에 몰두하게 되며 성인이 되면서 관련 영역에서 일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나 성인기가 되면 다중지능은 직업 또는 취미의 형태로 표출된다고 하였다(류성림, 2010; 재인용).

다중지능과 재능과의 관계를 연구한 김현진(1999)에 의하면 특목고 학생들은 관련지능 영역에서 다른 특목고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음악고의 경우 음악지능에서, 미술고는 공간지능과 자연지능에서, 과학고는 논리수학지능과 자성지능에서, 체육고는 신체운동지능에서 다른 특목고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재능과 관련된 다중지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 Gardner의 이론과도 부합된다.

영재 및 특목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도 다중지능이론은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데(류승희, 1996; 류지영, 2004; 조현철, 2005)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대상학생의 학교 분야, 혹은 영재성을 보이는 분야와 다중지능의 강점지능이 일치되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과학영재와 수학영재들은 논리·수학지능(권성근, 2007; 김명선, 2009; 이석주, 2009)에서 강점을 보였고, 외국어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언어지능(김현진, 1999)에서 강점을 보였다. 또한 미술영재의 다중지능 특성은 공간지능을 주도형 지능으로, 자연친화지능과 자기성찰지능을 보조형 지능으로 하는 레이저 형 프로파일(Laser-profile)을 지녔으며 아동·청소년기의 미술영재성은 타고난 지능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강병직, 2010).

언어창작영재의 다중지능에 대한 연구에서 한석실, 윤초희, 강승희, 조석희(2004)는 언어창작영재와 수학·과학영재의 언어지능과 공간지능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수리지능에 있어 수학·과학영재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윤경미, 유순화(2008)는 과학영재, 인문사회영재, 일반 중학생의 다중지능을 비교하여 인문사회영재의 언어지능, 대인지능이 세 집단 중에 가장 높고, 언어지능, 대인지능, 음악지능이 강점지능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편 인문사회영재의 자기이해지능과 논리·수학지능은 과학영재에 비해 낮으나 일반학생보다는 높은 것으로, 신체운동지능과 자연지능은 약점지능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진로발달 분야에서도 다중지능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주현, 문용린, 류상아, 2003; 2005; 문용린, 김주현, 박은실, 2003; 문용린, 유경재, 2009; 이승국, 2000; 이현림, 김순미, 2004). 문용린 외(2009)는 Gardner(1999a; 2006; 재인용)의 다중지능에 관한 심리측정 원리들을 반영하여 한국형 다중지능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다중지능이 진로선택의 계열과 관련이 높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다중지능은 청소년기나 성인기가 되면 직업 또는 취미의 형태로 표출되고, 재능과 관계가 있으며, 진로선택의 계열과도 관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언어능력이 뛰어난 영재들은 대개 언어지능과 대인지능, 음악지능이 강점지능으로 나타나고, 신체운동지능과 자연지능이 약점지능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하여 언어창작영재의 강점지능과 약점지능을 알아보는 선행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언어창작영재의 다중지능 적성 뿐 아니라 다중지능 진

로성향까지 깊이 있게 알아보았다.

3. 진로성숙도

진로는 어릴 때부터 성공적인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적성검사, 흥미검사와 같은 각종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도 개인의 특성이 직업 선택의 핵심요인이라는 이론적 가정에서 시작한다. F. Parson의 특성요인이론, A. Roe의 욕구이론, J. L. Holland의 유형이론 등은 그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문용린, 김주현, 2004; 재인용).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는 진로성숙의 개념을 자아의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로 정의하고 있다.

김충기(1983)는 진로성숙을 ‘개인의 직업적 소양, 가치, 직업,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해 궁극적으로 직업성숙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배양하며, 직업적 성숙의 결과를 낳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진로성숙의 개념을 유형근(2009)은 ‘자기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준비의 정도’라고 정리하였다.

Super(1955)는 진로성숙도에 대해 ‘진로선택이나 계획의 준비정도, 자아와 직업을 통합할 수 있는 준비정도, 자아인식을 바탕으로 진로계획이나 선택에 일치하는 정도, 이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김준용, 김지현(2008)은 초등학교 3~4학년이 되면 이미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기 때문에(김충기, 김현옥, 1993; 남미숙, 1998; 재인용) 초등학생에게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아동의 자아개념과 학습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현옥(1989)은 진로성숙과 가장 상관이 있는 변인으로 ‘지능’을 들었다. 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진로선택에서 보다 현명하며 자신감이 있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서 성취도가 높다고 하였다.

영재들의 진로성숙에 대한 연구로는 다재능성으로 인한 진로선택의 어려움(Kerr, 1991), 조기 진로성숙(심재영 외, 2003), 부모의 권유에 따른 진로선택(김수진, 2004)이 있다. 초등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발명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김현정, 유준희, 2006), 초등 영재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유형근, 2010)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언어창작영재의 적성과 진로에 관련된 성격 특성을 진단하여, 적성과 진로성향의 차이가 어떠한지, 어떤 분야의 활동이나 역할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진로지도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화된다.

III.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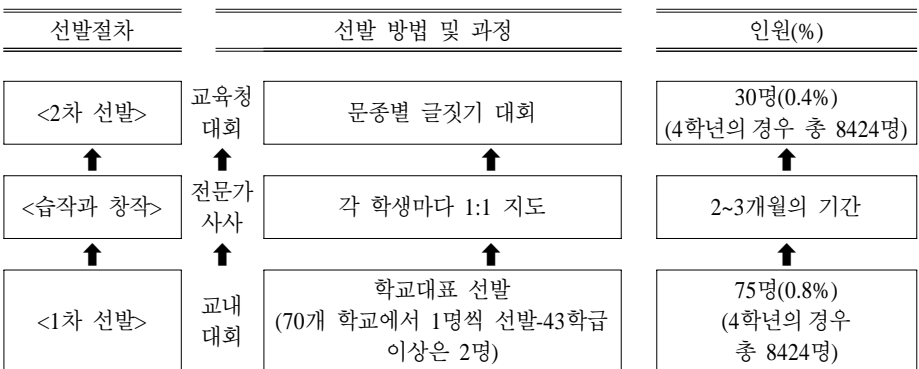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문종별 글쓰기 대회에서 수상한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120명(4학년 동시 30명, 4학년 논설문 30명, 5학년 기행문 30명, 5학년 논설문 30명) 중 언어영재캠프에 참여한 60명의 학생을 <표 2>와 같이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 2> 연구대상

| 학년 | 문종(부문) | 남 | 여 | 합 | 합계 |
|----|--------|----|----|----|----|
| 4 | 동시 | 3 | 17 | 20 | 41 |
| | 논설문 | 5 | 16 | 21 | |
| 5 | 기행문 | 0 | 10 | 10 | 19 |
| | 논설문 | 2 | 7 | 9 | |
| 합계 | | 10 | 50 | 60 | 60 |

각종 글쓰기 대회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모두 언어창작영재라고 할 수는 없으나, 글쓰기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쓰기 능력이 매우 뛰어난 언어창작영재의 특성을 가진다. 대전에는 현재 언어창작영재반이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회 최상위 입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영재성에 미치는 사교육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교육이 비교적 덜한 지역의 글쓰기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을 표집하였으나, 선발된 남학생의 수가 여학생에 비해 너무 적어서 성별을 맞추어 표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70개 초등학교의 문종별 대표들만 참여하는 대회에서 최종 선발되는 학생들의 수는 각 문종별로 30명(0.4%)이다. 2010년 대전광역시의 일반 수학·과학 영재학급 선발인원이 전체 학생 수의 1%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 영재학급에 선발될 확률보다 더 낮다. 문종별 글쓰기 대회에서 학생들이 선발되기까지의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문종별 글짓기 대회 학생 선발절차(4학년 동시부문의 예)

2. 측정도구

가. MI 적성진로 진단검사지

Gardner의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하여 문용린(2004)이 한국 상황에 알맞게 개발한 적성 및 진로진단검사지 중 초등학생(4~6학년)용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검사의 양호도 및 하위 영역검사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신뢰도

적성과 진로의식 성숙도 검사에 대한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8이상으로 신뢰도가 높다.

| 영역 | Cronbach Alpha |
|-------|----------------|
| 적성 | .83 |
| 진로성숙도 | .81 |

2) 타당도

하위 영역별 독립성을 알려주는 영역별 상관계수는 진로 독립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위 영역별 상관이 .1~.5로 서로 독립적인 내용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3) 검사 문항의 구성

검사 문항은 총 93문항이고 문항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검사문항의 구성

| 하위검사 | 영역 | 문항 수 |
|---------------------|--|-------|
| MI 적성 (성취+능력+흥미) | 신체운동, 논리·수학, 인간친화, 자연친화, 자기성찰, 음악, 언어, 공간 | 각 9문항 |
| MI 진로성향 | 신체운동, 논리·수학, 인간친화, 자연친화, 자기성찰, 음악, 언어, 공간 | 6 |
| 진로성숙도 | 진로적 관심, 진로 확신성, 진로 독립성, 진로 준비성, 정보처리능력 | 각 3문항 |
| 총 하위검사 수 | | 3 |
| 총 문항 수 | | 93 |
| 총 소요 시간 | | 약 40분 |

MI 적성진로진단검사의 하위검사 중 MI 적성은 여덟 가지 적성으로 각 '적성'은 성취, 능력, 흥미로 구성된다. '성취'는 아동이 과거 일정시점부터 현재까지 지능관련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수상 및 활동 경험이 있는지를, '능력'은 아동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 및 사고력과 그 관련 활동분야에서의 잠재력을, '흥미'는 활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진단한다. 이때, 우수적성(우수 진로적성)은 아동의 적성이 가장 많이 나타난 분야를 나타낸다. 성취, 능력, 흥미가 일치할수록 자신의 적성이 확고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수록 변화 가능성이 크다. ‘능력’이 ‘성취’나 ‘흥미’에 비해 큰 경우는 현재 그 적성영역에 관한 아동의 문제해결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흥미가 성취나 능력에 비해 큰 경우는 그 적성영역의 발전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MI 진로성향 검사는 다중지능 이론의 틀로 진로와 관련된 아동의 성격 특성을 진단하는 것이다. 즉, 아동이 어떤 분야의 활동이나 역할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또한 MI 적성 검사결과와 MI 진로성향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아동이 현재 적성에 어울리는 진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다.

초등 4~6학년의 진로성숙도 검사 영역은 <표 4>와 같이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진로성숙도 검사 하위영역

| 하위영역 | 측정내용 |
|----------|---|
| 진로적 관심 | 직장 업무 및 일에 대한 관심 정도 |
| 진로적 확실성 | 자신이 가질 직업에 대한 확신의 정도, 자신의 유능성 및 자신이 선택한 직업의 성공에 대한 확신의 정도 |
| 진로 독립성 | 자기의 직업은 스스로 선택해야 하며,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 |
| 진로 준비성 | 평소에 갖는 직업에 대한 고민 정도, 이후에도 직업에 대한 고려할 것인가, 그리고 희망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정도 |
| 정보 처리 능력 | 여러 직업에 대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정도 및 직업 관련 정보 수집 활동의 적극성, 평소 직업 관련 정보 수집 활동 정도 |

진로성숙도 검사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사고하는지, 이를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느 정도인지,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탐색하는지를 측정한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자료 수집

다중지능 적성검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뒤, 영재캠프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40분 동안 실시하였다. 총 6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나.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5.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언어창작영재의 다중지능 프로파일

언어창작영재의 다중지능 프로파일을 알아보기 위하여 언어창작영재의 전체평균 ($M=82.91$)을 모수치 검정값으로 간주하여 각 지능의 대표치(평균)가 속하는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인 일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언어창작영재의 다중지능 프로파일

(n=60)

| | M | SD | t | p |
|-------|-------|-------|---------|------|
| 신체운동 | 77.60 | 22.42 | -1.83 | .72 |
| 논리·수학 | 68.52 | 23.60 | -4.72** | .00 |
| 인간친화 | 79.66 | 24.91 | -1.01 | .32 |
| 자연친화 | 86.54 | 18.50 | 1.52 | .13 |
| 자기성찰 | 79.08 | 22.52 | -1.31 | .19 |
| 음악 | 88.68 | 10.94 | 4.09** | .00 |
| 언어 | 96.40 | 6.34 | 15.26** | .00 |
| 공간 | 87.71 | 16.25 | 2.29 | .26 |
| 전체 | 82.91 | 8.34 | .00 | 1.00 |

** $p < .01$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어창작영재의 다중지능 프로파일은 언어지능($t=15.26$, $p < .01$), 음악지능($t=4.09$, $p < .01$)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논리·수학지능이 ($t=-4.72$, $p < .01$)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만을 본다면, 언어창작영재는 언어지능, 음악지능이 강점인 반면, 논리·수학지능이 약점지능이라고 볼 수 있다.

2. 언어창작영재들의 우수적성

우수적성은 여덟 가지 MI 적성을 비교할 때, 그 분야의 문제해결력이나 관심이 다른 적성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며, 이러한 적성 결과가 2년 이상 꾸준히 계속된다면 그것이 학생의 진정한 적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수적성은 학생의 관심이 새로워지거나 주변 상황이 변하게 되면 변할 수도 있다. 검사 결과 언어창작영재의 우수적성의 분포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표 6> 우수적성의 직업군과 빈도

| 순위 | 우수 적성 | 직업군 | 빈도(%) |
|----|----------|--|----------|
| 1 | 음악 적성 | 음악가, 음악치료사, 음향기술자, 음악감독, 합창 지휘자, 음악 평론가, 피아노 조율사, DJ, 가수, 댄서, 음악교사, 음반 제작자, 영화음악 작곡가, 반주자, 음악공연 연출가 | 15(25) |
| 2 | 언어 적성 | 작가, 사서, 방송인, 기자, 언어학자, 연설가, 변호사, 카피라이터, 정치가, 설교자, 학원강사, 외교관, 성우, 번역가, 통역관, 문학평론가, 프로듀서, 판매원, 개그맨, 경영인, 아나운서, 시인, 리포터, 네이미스트, 카피라이터 | 13(21.7) |
| 2 | 자연 친화 적성 | 유전공학자, 식물학자, 생물학자, 수의사, 농화학자, 조류학자, 천문학자, 고고학자, 한의사, 의사, 약사, 환경운동가, 농장운영자, 조리사, 동물조련사, 요리평론가, 식물도감 제작자, 원예 예술가, 약초연구가, 화원경영자, 생명공학자, 생물교사, 지구과학교사, 동물원 관련 직종 | 13(21.7) |
| 4 | 공간 적성 | 조각가, 향해사, 의상디자이너, 엔지니어, 화가, 건축가, 설계사, 사진사, 파일럿, 코디네이터, 애니메이터, 인테리어 디자이너, 공예가, 미술교사, 지도 삽화가, 탐험가, 택시운전사,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게임 디자이너, 헤어디자이너 | 8(13.3) |
| 5 | 신체 운동 적성 | 안무가, 무용예술가, 엔지니어, 국가대표선수, 스포츠 해설가, 체육학자, 외과의사, 치과의사, 공학자, 물리치료사, 레크레이션 지도자, 연기자, 무용교사, 체육교사, 보석세공인, 군인, 스포츠 에이전트, 경락마사지사, 발레리나, 산악인, 응원지도자, 사회체육지도자, 건축사, 정비기술자, 카레이서, 파일럿 | 5(8.3) |
| 6 | 인간 친화 적성 | 사회학자, 학교교장, 정치가, 종교지도자, 웨딩플래너, UN 등 국제인권단체위원, 기업경영인, 호텔경영인, 정신과의사, 상담사, 법조인, 연극배우, 이벤트 사업가, 외교관, 국회의원, 장관, 호텔리어, 방송PD, 간호사, 사회사업가, 교사, 개인사업가, 회사원, 영업부 사원, 엔터네이너, 개그맨,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경찰관, 비서,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스투어디스, 판매원, 선교사, 상담원, 마케팅원, 컨설팅트, 펀드매니저, 교육사업가, 관광가이드 | 3(5) |
| 7 | 자기 성찰 적성 | 신학자, 심리학자, 작가, 발명가, 철학자, 정신분석학자, 성직자, 작곡가, 기업가, 예술인, 심리치료사, 심령술사, 역술인, 자기인식훈련프로그램 지도자 | 2(3.3) |
| 8 | 논리 수학 적성 | 엔지니어, 수학자, 물리학자, 과학자, 은행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구매대리인, 생활설계사, 공인회계사, 회계 감사원, 회사원 (경리, 회계업무), 탐정, 의사, 수학교사, 과학교사, 법조인, 정보기관원, 발명가 | 1(1.7) |
| 합계 | | | 60(100) |

우수적성의 빈도는 <표 6>과 같이 음악>언어/자연친화>공간>신체운동>인간친화>자기성찰>논리·수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성은 성취와 능력, 흥미의 세 하위영역 점수로 산출되므로 우수적성(강점)인 음악적 성과 언어적성과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는 논리·수학 적성(약점)을 <표 7>에서 성취, 능력, 흥미의 세 하위영역별로 점수를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표 7> 언어적성, 음악적성, 논리·수학적성의 하위영역(성취, 능력, 흥미) 점수

| 순 | | M | SD |
|---|---------|-------|-------|
| 1 | 언어능력 | 66.45 | 10.12 |
| 2 | 음악능력 | 65.17 | 8.42 |
| 3 | 언어성취 | 63.33 | 8.43 |
| 4 | 음악성취 | 60.55 | 16.78 |
| 5 | 언어흥미 | 60.17 | 7.72 |
| 6 | 음악흥미 | 57.85 | 7.56 |
| 7 | 논리·수학흥미 | 55.25 | 8.38 |
| 8 | 논리·수학능력 | 53.83 | 10.86 |
| 9 | 논리·수학성취 | 50.13 | 13.16 |

문용린의 다중적성진로검사 설명서에 따르면 적성이 성취>흥미, 능력인 경우 그 영역에 대한 과거 경험이 매우 긍정적인 것을 뜻하고, 능력>성취, 흥미인 경우 그 영역에 대한 문제 해결력이 높다는 것을 뜻하고 흥미>능력, 성취인 경우에는 그 영역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과 같이 언어적성과 음악적성의 경우 능력>성취, 흥미의 형태를 보여 언어적 문제해결력과 음악적 문제해결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논리·수학적성의 경우 흥미>능력, 성취의 형태를 보여 논리·수학 부분에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언어창작영재들이 음악적 흥미와 언어 흥미의 정도가 서로 비슷하고 음악 성취(음악과 관련한 대회에 참석하여 상을 타는 것과 같은 경험)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어창작영재 학생 전체의 점수를 합하여 분석한 것이므로 각 개인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각 개인들의 적성의 하위영역(성취, 흥미, 능력) 점수는 어떤 영역의 부족함을 보완해주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유의한 정보가 된다. 언어창작영재의 경우 논리·수학적성의 하위영역(성취, 흥미, 능력) 점수가 언어/음악 적성에 비해 모두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음악적성과 언어적성, 논리·수학적성 각 하위영역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표 8> 음악적성, 언어적성, 논리·수학적성 각 하위영역의 상관

| | | 음악적성 | | | 언어적성 | | | 논리·수학적성 | | |
|-----------------|---------|----------|----------|----------|----------|----------|----------|-------------|-------------|-------------|
| | | 음악 성취 | 음악 능력 | 음악 흥미 | 언어 성취 | 언어 능력 | 언어 흥미 | 논리·수학 성취 | 논리·수학 능력 | 논리·수학 흥미 |
| 음악 적성 | 음악성취 | 1 | | | | | | | | |
| | 음악능력 | .28 * | 1 | | | | | | | |
| | 음악흥미 | .23 | .10 | 1 | | | | | | |
| 언어 적성 | 언어성취 | .18 | -.02 | .20 | 1 | | | | | |
| | 언어능력 | .09 | -.08 | .02 | .01 | 1 | | | | |
| | 언어흥미 | -.06 | .10 | .33** | .31* | .05 | 1 | | | |
| 논리· 수학 적성 | 논리·수학성취 | -.03 | -.00 | .17 | .16 | .02 | .32* | 1 | | |
| | 논리·수학능력 | .19 | .12 | .08 | .26* | .31* | .29* | .17 | 1 | |
| | 논리·수학흥미 | .06 | .08 | .35** | .06 | .24 | .31* | .45* | .18 | 1 |

* $p < .05$, ** $p < .01$

<표 8>을 보면 논리·수학적성의 하위영역에서는 논리·수학성취가 논리·수학흥미와 유의수준 $p < .01$ 에서 상관이 있었다. 이들의 언어적성의 하위 영역 중 언어성취, 언어능력은 음악적성, 논리·수학적성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언어성취나 언어능력보다는 언어흥미가 음악적성, 논리·수학적성의 하위영역들과 상관이 있었다. 또한 각 적성의 하위영역들 중 대체로 ‘성취’나 ‘능력’보다는 ‘흥미’가 다른 영역과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검사결과는 60명의 극히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더 많은 수의 언어창작영재들을 표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3. 언어창작영재들의 진로성향

진로성향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역할과 활동 및 상황 속에서 현재 다른 분야보다 더 선호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나타낸다. <표 9>에 진로성향을 정리하였다. 언어창작영재들의 진로성향 1순위는 언어성향과 인간친화성향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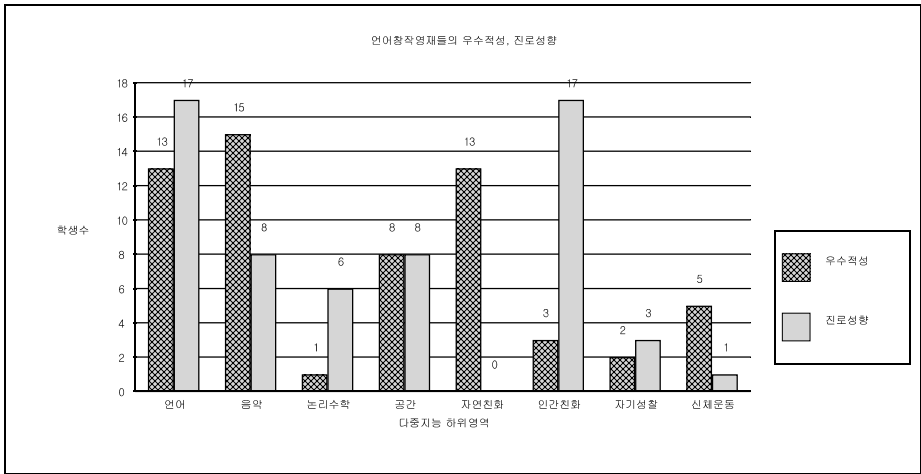
<표 9> 언어창작영재들의 진로성향

| 순 | 진로성향 | 빈도(%) |
|---|---------|----------|
| 1 | 언어성향 | 17(28.3) |
| 1 | 인간친화성향 | 17(28.3) |
| 3 | 음악성향 | 8(13.3) |
| 3 | 공간성향 | 8(13.3) |
| 5 | 논리·수학성향 | 6(10) |
| 6 | 자기성찰성향 | 3(5) |
| 7 | 신체운동성향 | 1(1.7) |
| 8 | 자연친화성향 | 0(0) |
| | 합계 | 60(100) |

<표 9>에서 보듯이 언어창작영재들이 희망하는 진로성향은 언어성향(17명, 28.3%)과 인간친화성향(17명, 28.3%)이 가장 많았고 자기성찰성향(3명, 5%), 신체운동성향(1명, 1.7%)이 아주 적었으며, 자연친화성향을 보이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4. 언어창작영재들의 우수적성과 진로성향

언어창작영재들의 우수적성, 진로성향을 비교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언어창작영재들의 우수적성, 진로성향

언어적성, 공간적성, 자기성찰지능의 경우 우수적성과 진로성향이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음악적성, 자연친화적성, 인간친화적성의 경우 우수적성과 진로성향의 차이가 컸다. 음악적성이 뛰어난 학생들은 음악적 재능과 관련이 없는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언어창작영재들 중에서 자연친화적성이 뛰어난 학생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친화적성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한 학생은 하나도 없었다. 또한 인간친화적성이 우수적성으로 나타난 학생이 3명으로 적는데 비하여 인간친화성향의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는 17명으로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5. 언어창작영재의 진로성숙도

언어창작영재들에게 진로성숙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진로성숙도 검사 결과

| | 빈도(%) | | | | |
|-------|----------|--------|----------|-------|---------|
|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계 |
| 진로성숙도 | 17(28.3) | 24(40) | 13(21.7) | 6(10) | 60(100) |

<표 10>을 보면 진로성숙도가 매우 높은 학생이 17명(28.3%), 높은 학생이 24명(40%)으로 나타나, 총 41명(68.3%)의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언어창작영재학생들은 다른 영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조기 진로성숙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언어창작영재의 다중지능 적성, 진로성향 및 진로성숙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 문종별 글쓰기 대회에서 수상하여 언어영재캠프에 참여한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60명)을 대상으로 다중지능 적성진로검사를 실시하여 다중지능 프로파일과 강·약점 지능을 알아보고, 다중지능 하위영역별로 학생들의 우수적성과 진로성향을 분석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중지능 프로파일은 언어지능, 음악지능이 강점지능으로, 논리·수학지능이 약점지능으로 나타났다. 다중지능과 재능과의 관계를 연구한 김현진(1999)의 연구결과에서 특목고 학생들이 관련지능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언어창작영재들은 언어지능이 강점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재능과 관련된 다중지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 Gardner의 이론과도 부합된다. 또한 음악지능이 언어지능과 함께 강점지능으로 나타난 것은 유아의 국악표현능력이 다중지능 영역 중 언어지능과 가장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김나래, 김진경, 2009)결과와, 음악이 언어의 여러 가지 면들,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Kolb(1996)의 주장과도 부합된다. 과학영재, 인문사회영재, 일반 중학생의 다중지능 특성을 비교한 윤경미, 유순화(2008)는 인문사회영재의 경우 언어지능, 대인지능, 음악지능이 강점 지능으로 나타나고, 자기이해지능과 논리·수학지능은 과학영재보다는 다소 낮았으나 일반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운동지능과 자연지능은 약점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특히 인문사회영재는 언어지능과 대인지능이 세 집단 중 가장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쓰기에 영재성을 보이는 초등학교 언어창작영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중학교의 인문영재(영어, 인문, 사회, 창작영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대인지능과 자연지능에 있어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으나, 언어지능과 음악지능이 강점 지능으로 나타난 것은 공통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우수적성은 음악적성과 언어적성으로 나타난 학생이 많았고, 논리·수학적성으로 나타난 학생이 가장 적었다. 우수적성은 다중지능 적성진로검사 결과 다른 학생들에 비해 가장 우수하게 판단되는 적성으로 성취, 능력, 흥미로 구성이 된다. 언어창작영재들 중에서 음악적성이 우수적성으로 나타난 학생이 가장 많다는 것은 언어의 습득과정과 음악의 습득과정이 비슷한 것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음악읽기와 읽기 배우기는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는 연구(Lloyd, 1978)와 음소론적 인식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음정 구별 평가에서 높은 수행점수를 받았다는 연구(Lamb, Gregory, 1993), 유아 다

중지능 평가도구의 구조에 관한 연구(양옥승 외, 2004)에서 음악지능과 언어지능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언어창작영재들의 음악적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 중 50명(83%)의 학생들이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남학생의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성별을 고려한 후속연구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언어창작영재들의 언어적성의 하위영역 중 언어성취, 언어능력은 음악적성, 논리·수학적성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언어흥미는 음악적성의 하위영역 중 음악흥미, 논리·수학적성의 하위영역에 모두 상관이 있었다. 즉 언어관련 영역에서 얼마나 수상 및 활동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성취’와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 및 사고력, 언어관련 활동분야에서의 잠재력인 ‘능력’보다는 언어활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인 ‘흥미’가 음악적성과 논리·수학적성의 하위영역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논리·수학흥미와 논리·수학성취는 다른 하위영역들보다 상관의 정도가 컸다. 따라서 언어창작영재들의 논리·수학성취를 높이려면 논리·수학흥미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창작영재들에게 우수적성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음악적성과 언어적성, 가장 적게 나타난 논리·수학적성의 하위영역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신체운동적성, 인간친화적성, 자연친화적성, 자기성찰적성, 공간적성의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성향은 언어성향과 인간친화성향의 학생이 가장 많았고, 자연친화성향의 학생은 없었다. 음악적성, 자연친화적성, 인간친화적성은 우수적성과 진로성향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진로성향은 어떤 분야의 활동이나 역할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음악적성의 경우 음악적성이 우수적성으로 나타난 학생들의 수와 음악진로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의 수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는 언어적성이 우수적성으로 나타난 학생들의 수와 언어진로성향을 보이는 학생의 수에 큰 차이가 없는 것과 비교가 된다. 즉 학생들은 우수한 음악적성을 직업으로 연계하기보다는 ‘취미나 특기’의 개념으로 받아들여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연친화적성이 우수하다고 나타난 학생들이 많았으나, 한 명도 자연친화성향을 보이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친화적성이 뛰어난 학생들이 자신의 우수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로를 희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연친화적성 직업군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정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는 연구 대상의 구성이 여학생이 많다는 것과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다. 우수적성이 자연친화적성으로 나온 학생은 총 12명(여학생 10명, 남학생 2명)으로 영재 여학생들은 성역할 고정관념 등과 같은 진로발달에 어려움을 갖는다는 연구결과(Bell, 1989; Hollinger, 1991; Kerr, 1995; Schwartz, 1991)와도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영재 여학생들이 유전공학자, 식물학자, 생물학자, 수의사, 천문학자나 환경운동가, 동물원관련 직종 등에 대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여 타 영재 학생들과의 비교연구와 같은 후속연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간친화적성이 낮은 학생들이 인간친화성향의 직업을 대거 희망하고 있다는 점은 자신의 적

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직업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우수적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직업에 필요한 적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초등학교 언어창작영재들의 진로성숙도는 과반수 이상(41명, 68%)의 학생이 높게 나타나, 조기 진로성숙의 특성을 보였다. 심재영(2003)은 영재는 조기 진로성숙으로 인해 진로를 정할 때 교사, 부모, 또래 혹은 전문가와 상의할 기회를 갖기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능력, 인성, 신체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진로를 결정함으로써 이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성공적인 직업인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재능과 적성이 무엇인지 알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기 진로성숙의 특징을 보이는 초등학교 언어창작영재들에게 진로지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학부모, 교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언어창작영재들의 성공적인 진로선택을 위해 영재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들의 우수적성에 어울리는 직업을 안내하고 진로성향에 맞는 적성 강화교육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언어창작영재들의 적성과 진로성향, 진로성숙도를 분석하여 언어창작영재들의 성공적인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전광역시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별과 학년을 고려한 표집을 통해 언어창작영재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적성과 진로성향, 진로성숙도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언어창작영재들과 일반학생, 다른 영역 영재들의 적성과 진로성향, 진로성숙도를 비교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언어창작영재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성별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병직 (2010). 미술영재의 다중지능 특성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4(2), 1-44.
- 강승희, 조석희 (2004). 언어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탐색. **영재교육연구**, 14(1), 91-144.
- 강승희 (2006). 언어 영재성 결정요인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및 발달요인 탐색. **아동교육**, 15(4), 21-36.
- 권성근 (2007). **5, 6학년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특성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원대학교.
- 김나래, 김진경 (2009). 유아의 국악능력과 다중지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0(2), 195-209.
- 김명선 (2009). **과학영재의 강점지능에 따른 자기조절학습 능력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수진 (2004).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경로와 진로결정**.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김중운, 김지현 (2008). 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습동기와 진로성숙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1(2), 127-143.
- 김주현, 문용린 (2005).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청소년기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9(2), 393-412.
- 김충기 (1983). 진로정보자료센터의 기능과 역할. **직업교육연구**, 2, 23-37.
- 김현옥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김현정, 유준희 (2006). 과학 영재 학생들의 진로 선택 과정에 영향을 주는 과학 영재 캠프의 요인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6(2), 268-278.
- 김현진 (1999). **다중지능 측정도구(K-MIDAS)의 타당화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남미숙 (1998). 초등학생의 진로 자아 효능감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연구. **진로교육연구**, 9, 199-222.
- 류상아 (2003). **중학생들의 진로유형 및 진로성숙 수준과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류성림 (2010). 초등 수학영재와 학부모의 다중지능에 관한 비교 분석. **수학교육 논문집**, 24(3), 807-830.
- 류숙희 (1996). **지각된 다중지능의 집단차와 IQ 및 성적과의 관계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류지영 (2004). 다중지능이론의 영재교육에의 적용. **교육과정연구**, 22(1), 147-169.
- 문용린, 김주현 (2004).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진로교육 가능성 탐색. **진로교육연구**, 17(1), 1-19.
- 문용린, 유경재 (2009). 한국형 다중지능 진단도구의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3(3), 645-663.
- 박소영 (2008). **문학 창작 영재의 판별과 선발 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박수자, 최인자, 김정섭, 강승희 (2004). 언어 영재를 위한 창의적 작문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1, 256-297.
- 박인기 (2009). 언어 · 문학 영재교육의 정책 방향 모색. **한국초등국어교육**, 39, 187-229.
- 서혜애, 손정우 (2007). 과학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과학교사 및 학생의 인식. **교육과정연구**, 25(2), 197-219.
- 심재영, 박은영 (2003). 과학 영재의 진로의식 변화 연구(1996년-2003년). **영재교육연구**, 13(2), 95-112.
- 양옥승, 신화식, 이경옥 (2004). 교사가 평가한 유아 다중지능 평가도구(MIDAS-MYC)의 구조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5(4), 115-128.
- 양태현, 한기순 (2010). 대학생 과학영재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 **영재교육연구**, 20(3), 921-946.
- 유형근 (2010). 초등 영재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20), 241-266.
- 윤경미, 유순화 (2008). 과학영재, 인문사회영재, 일반 중학생의 다중지능 특성 비교. **청소**

년학연구. 15(5), 287-313.

- 윤진, 박승재 (2003). 과학 관련 진로 선택 과정의 구조 방정식 모형.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3(5), 517-530.
- 이미경 (2005). **언어 영재 교육 심화프로그램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석주 (2009). **정보영재와 수학영재의 특성 및 통합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이순영 (1999). **언어 영재의 개념과 언어 영재 교육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문헌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승국 (2000). **중등학생의 진로성숙수준과 개인의 내·외적 변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의란 (2004). **언어 영재 판별 도구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이현림, 김순미 (2004).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다중지능과의 관계분석. **청소년학연구**, 11(2), 83-99.
- 장창영 (2009). 언어-문학영재와 시적 언어능력. **한국언어문학**, 68, 309-338.
- 조현철 (2009). **정보영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과학영재의 다중지능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최지현, 이충우, 이정숙 (2006). 언어영재성 판별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1). **국어교육**, 121, 163-194.
- 한국교육개발원 (1992). **진로성숙도검사 표준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석실, 윤초희, 강승희, 조석희 (2004). **언어창작영재의 심리적 특성 및 발달에 관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DeHann, R. F., & Kough, J. (1956). *Identifying students with special needs*. Chicago: Science Research Associates.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H. (2007).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문용린, 유경재, 역]. 다중지능. 서울: 웅진씽크빅(원본출간년도; 2006).
- Kerr, B. A. (1991). *A handbook for counseling and gifted and talented*. Alexandria, VA: American Association for counseling and development.
- Kerr, B. A. (1995). *Smart girls too: A new psychology of girls, women and giftedness*. Scottsdale, AZ: Gifted Psychology Press.
- Kerr, B. A. & Sodano, S. (2003). Career assessment with intellectually gifted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2), 168-186.
- Kolb, G. R. (1996). Read with a beat. *The Reading Teacher*, 50(1), 76-77.
- Hollinger, C. L. (1991). Facilitating the career development of gifted young women. *Roeper Review*, 13(3), 135-139.

- Lamb, S., & Gregory, A.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and reading in beginning readers. *Education Psychology, 13*(1), 19-27.
- Lloyd, M. J. (1978). Teach music to aid beginning readers. *The Reading Teacher, 32*, 323-327.
- Michael, L. S. (1958). Secondary-school programs. In N. B. Henry (Ed.), *Education for the gifted. 57th yearbook. Part II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enzulli, J. S., & Reis, S. M. (2000). *The schoolwide enrichment model: A how-to guide for educational excellence*. Mansfield Center, CT: Creative Learning Press.
- Schuler, P. (2002). Perfectionism in gifted children and adolescents. In M. Neihart, & M. Reis, N. M. Robinson, & S. M. Moon (Eds.), *Th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pp. 71-79). Waco, TX: Prufrock Press, Inc.
- Schwartz, L. L. (1991). Guiding gifted girls. In R. Milgram (Ed.), *Counseling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A guide for teachers, counselors, and parents*, (pp. 143-160). Norwood, NJ: Ablex.
- Shearer, C. B. (1997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ple intelligences assesment scale for children*. presented at the 105th APA meeting. ED. 415476.
- Super, D. E. (1955). The dimensions and measurements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 151-163.

= Abstract =

The Study on the Multiple Intelligence Aptitude, Career Tendency & Career Maturity of Verbal Writing Gifted Student

Yoo-se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have an intention of identifying multiple intelligence aptitude, career tendency and career maturity of verbal writing gifted students. 60 verbal writing gifted students who have achieved success in the writing contest were collected for this study. The data was selected through survey MI instruments from the student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verbal writing gifted students' MI profiles were revealed that linguistic intelligence, musical intelligence were strong, and 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was weak. Second, many verbal writing gifted students showed strong musical career aptitude and strong linguistic career aptitude but few writing gifted students showed strong logical-mathematical aptitude. It was revealed that logical-mathematical interest ha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logical-mathematical achievement in the p -value<.01. Third, there were many linguistic career tendency students & interpersonal career tendency students. But there was no naturalist career tendency student. Musical career tendency, naturalist career tendency showed big differences between strong career aptitude and career tendency. Fourth, career maturity of verbal writing gifted student was very high. The finding can be explained that most of them have characteristics of early career maturity. Parents, teachers, specialists have to provide career information matching strong aptitude and aptitude improving education matching career tendency to the verbal writing gifted students to choose their career successfully.

Key Words: Verbal writing gifted students, Multiple intelligence aptitude, Career tendency, Career maturity

| |
|----------------------|
| 1차 원고접수: 2011년 2월 8일 |
| 수정원고접수: 2011년 3월 15일 |
| 최종게재결정: 2011년 3월 22일 |